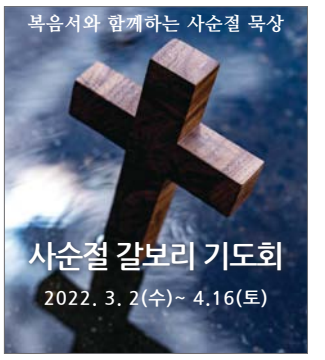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2022년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욥기〉, 광림 4 Steps 리더 교육 개강

2022년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개강했다. 3월 8일 ~ 5월 24일 까지 12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에 본당 대예배실과 지교회에서 김정석 담임목사 강의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저녁반 강의도 다시 개강했다.

봄학기 트리니티 성경공부는 '욥기'이며 주제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Now my eyes have seen you" (욥 42:5) 이다.

욥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밝히며,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간의 갈등은 순종으로만 해결됨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의로운 행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욥은 역사적으로 실재 했던 인물로, 의롭고 경건하게 생활했던 한 인간이 고난과 깊은 고뇌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서 오직 겸허하게 청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래적 위치를 분명하게 깨닫는다. 욥은 극도의 고난을 겪으면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증명하며 삶의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된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이번 욥기 성경공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배우게 된다"며 광림의 모든 성도들은 트리니티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바란다고 했다.

〈광림 4 Steps 리더 교육〉
광림교회 영적 리더(임원, 속장, 선교회장) 및 예비 리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광림 4 steps 리더교육'이 3월 13일 ~ 5월 29일 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 ~ 4시 까지 진행된다.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A홀에서 진행하는 1단계 'Knowing Jesus(예수님의 사랑 알아가기)'를 담당하는 유제석 목사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힘들고 지쳐있는 평범한 자들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자 애를 썼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향해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진실과 정직,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했다.

본당 벧엘 성전에서 진행하는 2단계 'Following Jesus(예수님의 발자취 따르기)'는 박중섭 목사가 담당한다. "2단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의 단계로 이제는 삶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실천의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는 상처나 실패의 경험을 통해 낙심했던 우리 영혼을 회복했다면 이제는 한 걸음 움직여 제자의 실제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라며 성도들의 참여를 권면했다.

이상희 기자

2 광림의 강단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3 광림 스토리 울진 산불피해지역 성금전달식
4 하나님을 만나다 성가대를 은퇴하며
5 다음세대 청년부 파라과이 선교후원
7 믿음의 현장 광림의 숨은 명인 탐방(2)
8 특집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동안 모세의 인생 40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며 지낸 40년이라는 세월은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일상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의 일상은 이전과는 다르게 특별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지난 40년의 세월이 평범한 일상들이 아니라 오늘의 특별함을 위해 쌓아진 날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3절)고 말합니다. 광야는 건조하기 때문에 가시덤불 같은 것이 굴러다니다가 불붙는 현상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양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 떼를 몰던 중이었기에 시간과 재물을 자신의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신비로운 현상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이 현상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시덤불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었음에도 타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신비로웠기 때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도 특별함을 발견하는 사람은 새로운 힘으로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에도 감동이 없다면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대하는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두려운 나머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일곱 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 일곱 딸들 중에서 십보라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은 후에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착하지 못한 그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거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모세의 삶은 물질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아오면서 물질이나 명예가 온전한 안정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질이나 명예보다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할 무언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대가 있는 삶은 평범한 것 가운데서도 특별함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처음 불붙은 떨기나무를 봤을 때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인 줄 알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그 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자, 그 현상 안에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1.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4.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신의 두 눈으로 이 신비한 광경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거룩한 장소로 갔을 때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모두 평범한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기적을 선물하십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기대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넘치게 됩니다.

둘째, 기대하는 믿음에 만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황폐하고 버려진 땅, 건조한 땅, 황무지, 불모지’라는 의미입니다. 산으로서 큰 가치가 없고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모세에게는 불모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곳에서 신비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 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려고 했을 때, 모세만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본문 4절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와 만나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있던 그 자리는 모세의 기대감과 하나님의 기대감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모든 참다운 삶은 만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만남이 있을 때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만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당연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셋째, 기대하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5절)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의심과 고민도 있었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곧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삶이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 레너드 스윗 박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고 합니다. 읽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읽다 보면 결단하게 되고, 읽다 보면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게 되고 삶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세상의 이치를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망이 있는 자는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의 체험은 모세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숨어 살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울진 산불피해지역 성금전달식

후원금과 긴급 구호 박스 전달

동해안 지역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에 근접하고 있다. 이중 울진의 산림 피해 면적은 1만 7,873ha이며(3.10 현재) 동해안 지역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진화율은 75% 정도이다. 울진의 주택피해는 285채이다.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감독회장 이철 감독)와 선교국(위원장 김정석 감독)은 긴급 재난 지원금을 모금하였고, 광림교회의 5,000만원을 비롯하여, 본부와 기둥교회, 꿈의교회, 베다니교회, 세계로금란교회에서 모금된 5,000만원을 포함, 1억원을 모아 3월 10일 울진군 봉평리에 있는 산불진화본부에 방문했다. 특별히 광림교회 후원금은 이 소식을 들은 여선교회가 가장 먼저 1,000만원을 헌금했으며, 교회의 선교비로 긴급히 마련된 것이다.

현재, 이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주할 수 있는 장소와 보상이다. 보험을 통한 보상이 턱없이 적기 때문에 많은 후원금과 주택복구 비용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신속히 후원금을 모금했다. 또한, 많은 단체가 식품이나 의류 등을 기부하고 있지만, 이것을 분류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민에게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광림교회는 200개의 긴급 구호 박스를 만들어 이재민에게 전달했다. 구호 박스 안에는 당장 입을 수 있는 옷과 비누, 샴푸 등 생필품, 즉석 식품, 영양제 등 박스 당 10만원 상당의 물품이 담겨 있다. 우리 성도가 운영하는 기업인 담터, 동국제약, 영화유통 등에서 대량으로 물품을 기증했으며, 개인적으로 200여벌의 의류와 마스크, 치약, 수건 등을 교회로 보내 신속하게 구호 박스를 준비할 수 있었다.

전찬걸 울진 군수는 어려운 때에 울진까지 찾아와 후원금과 긴급 구호 박스를 전해준 감리교회 본부와 광림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지구촌 곳곳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

2022년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3월 2일(수)부터 4월 16일(토)까지 40일 동안 진행되고 있다. 1부 기도회(새벽5시)는 광림교회 본당 벧엘성전과 광림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에서 동시에 열리고, 2부(새벽6시)는 본당 교육관2층에서 열린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는 절기로써 부활절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이다. 40이란 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일,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한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등장한다.

이에 고난 주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수난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의를 살펴보며 자신의 신앙을 재각성하고자 40일간의 절제 기간을 갖는 것이다. 즉, 자기 근신과 금식을 통한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지구촌 곳곳에는 현재 전염병과 전쟁, 산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많다. 광림의 성도들은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에 참여하여 그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광림 홈페이지 사순절 베너 광고에 들어가서 실시간 방송 바로가기, 지난 방송 바로가기, 핸드북 다운로드 가기를 활용하면 더 은혜로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다.

사순절에는 다음 사항을 실천해 보자.

-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
- 매일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
-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식을 한다.(기호식품, 군것질, 오락 등을 삼가 한다.)
-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변에 아픔을 당하는 이웃과 친구를 돕는다.

이정순 기자

포토 뉴스

EBA 영어성경원 개강

양의문에서 '다니엘서' 영어성경원이 진행 중이다.

다양한 교회 행사들

성경공부, 남선교회 직무교육, 갈보리 기도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이다.

샤이닝 키즈 원아모집

5~7세 어린이교육기관인 광림샤이닝 키즈가 원아를 모집하고 있다.

담임목사 동정

2/28	3.1절 기념예배
3/3	서울남연회 실행위원회
3/6	장학금수여식
3/8	트리니티 개강
3/10	나세남운영위원회
	감리사협의회
	울진산불피해 위문금품 전달식
3/13	임마누엘교회 장로취임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갈릴리 성가대 은퇴를 회상하면서

성가대 은퇴식을 가지면서 그동안 성가대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48년의 시간이 오랜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엊그제 같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때로는 사명으로 깨닫고 지나온 세월이 이제는 아쉽고 섭섭하여 기도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음악이 비전공이고 특히, 청력에 약간의 장애가 있는 저를 하나님이 쓰시려는 특별한 뜻이 있으셨는지 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주일날 부모님을 따라 광림교회 예배에 처음 온 저를 전도사님께서 등을 떠밀며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라고 성가대실로 넣으시는 강권함에 억지로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그동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성가대 연습 중에 악보를 잘 읽지 못해 음과 박자가 틀려 눈치를 보면서 죄책감에 그만 두려는 마음이 여러 번 있었지만 당시에 성가대원 목표가 50명이였기에, 나 하나라도 대원의 숫자를 채우는 것도 하나님이 혹 원하실지 모른다는 생각과, 그러기에 연습이 더욱 필요함을 알고 연습에 충실하려고 우선순위로 연습시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을 드릴 때에는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로 때로는 감사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양의 부족함을 스스로 책망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기도한 시간들과, 흠 없고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족한 찬양을 드렸던 시간들 등, 은퇴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한 부족한 기억들만 생각납니다.

성가대는 레위지파만이 헌신하는 귀한 제사장의 직분임을 알면서도 후임 성가대원을 인도하지도 못하고 은퇴하는 것이 더욱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제는 예배석에서 성가대 찬양이 영감 있고 은혜롭기를,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인들에게는 말씀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성가대원들에게는 찬양 중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함께하며,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 성가대를 자원하는 대원의 수가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노진홍 권사(20교구)

성가대원으로 드린 감사의 시간들

지난 53년간 광림교회 성가대원으로 세워주시고 배우자 윤현경 권사와 함께 직임을 감당하게 하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간 성가대원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기도와 엄격한 신앙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인으로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20대 초반 부터 성가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도 함께 봉사하게 되었으며 자녀들을 어머니께서 돌봐주시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주일학교에 잘 참여함으로 계속적인 성가대 봉사가 가능했고, 가족들의 신앙적 조력이 있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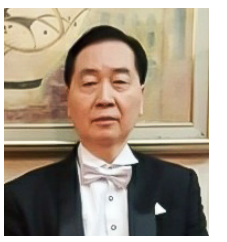
남교회 새하늘성가대 대장의 직임을 맡고 2년째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간으로도 전이가 되면서 암과 사투를 벌이는 시련을 맞게 되었고, 4차례 대수술과 항암치료를 받는 중에도 직장생활과 성가대봉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감독과 담임목사님, 성가대원들의 기도와 격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완치 후 까지도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의 주요 과제는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는 음악적인 기술과 신앙적인 감성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규적인 음악교육의 경험이 없어 청음에만 의존하다 보니 시창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또한 성가대 위주의 교회생활이 선교회, 교회학교 등의 참여에 미흡하였고 신앙생활의 부족함을 초래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었냐고 물으면 40년간 다국적 바이오 기업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한 것 보다는 광림교회 성가대원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렸던 시간들이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교인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성가대가 되시기를 항상 기도드립니다.



이헌구 권사(54교구)

2022년 상반기 광림장학금 수여식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라"

3월 6일 주일 저녁예배시간 대예배실에서 <2022학년 상반기 광림장학금 수여식>이 장학생과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학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광림교회 출석 가정의 자녀로 대학에서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할 때 받는 성적우수장학금(9명), 감리교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에 대한 장학금(7명), 서울남연회 소속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7명)으로 이번에 23명에게 각각 150~200만원씩 총 4,1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 "요즈음 사회적 현상 때문인지 젊은이들 가운데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도움을 주신 많은 교인들과 장학위원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장학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성도들의 매월 1만원 장학헌금, 개인명의 기념장학금, 기업후원 장학금, 장학위원들의 헌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1998년 장학위원회가 설립되고 그 이듬해부터 지급된 장학금은 23년동안 총 2,200여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그 금액은 28억원에 이른다.

신성수 장로(장학위원회 위원장)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랜 기간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신 감독님과 담임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교회 장학위원과 각 교구 장학위원께도 감사를 드린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에 헌신하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주하은 학생(대학교 3학년)은 "장학금을 받게 되니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수입의 십일조도 드리고 있다. 이번에 좋은 기회를 주신 광림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했다.

이득섭 기자

청년부, 파라과이 선교 후원

나무의자, 에어컨 후원 - 해외선교팀

광림교회 청년부 해외선교팀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각 열방과 세계에 전파되기 위한 방법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선교팀은 남미 파라과이에서 선교 중이신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님의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 선교지는 예배당에 의자가 부족하여 성도님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고, 무더운 날씨(40~45도)로 인해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청년부 해외선교팀은 선교 헌금을 전달하여 선교지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의자를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후원하였습니다.

파라과이는 청년부에서 지난 19년도 2월에 단기선교를 다녀온 선교지였습니다. 청년들은 그곳에서 여러 교회와 학교들을 돌며 예배를 드렸고, 말씀과 무언극을 통해 복음을 전하였으며, 집회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통해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소리 해외선교팀장은 "후원을 하면서 파라과이 교회에 지금보다 많은 발걸음이 이어져 복음의 열매가 곳곳에 맺어지길 기대했습니다"라고 고백했고, 이윤경 해외선교부팀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시는 파라과이 선교사님께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보내온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님의 감사 인사와 중보기도제목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광림교회 청년부에서 깊은 사랑과 정성이 담긴 귀한 선교헌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선교헌금은 에어컨을 설치하고 나무 의자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40~45도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율동, 암송, 색칠 등 활동을 더 집중하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파라과이, 기독교 예술 유·초·중고등학교(colegio cristiano arte)를 위해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광림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파라과이 할렐루야 교회, 사랑과 평화교회 중보기도제목

1) 코로나19로 재택 공부를 잘 인내하여 아름답게 지내왔는데, 2022년 새해를 걱정없이 맞이하고, 재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2) 헌신적이고 복음적인 학교선생들과 전도대상 어린이가 많이 모집되도록
3) 전도의 열정이 결코 중단이나 저하되지 않도록
4) 일곱번째 개척하려는 곳의 주변 전도가 무르익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도록. 임마누엘!

앞으로도 청년부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가는 해외 100교회 건축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2022 샤이닝아카데미 〈교사 대학〉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눅 9:48)

한결같은 자리에서 늘 아이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해 광림교회 교회학교는 2022년 샤이닝 아카데미 〈교사 대학〉을 개최한다.
이번 샤이닝 아카데미 〈교사 대학〉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사명의식과 부름심을 깨닫고 올바른 주일 학교 교사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을 목표로 한다. 교사를 위한 샤이닝 아카데미는 올 해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계획 되어 있으며, 상반기 교육은 3월 13일부터 20일까지 매 주일 14시부터 16시까지 장천아트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사 대학〉은 두 명의 강사가 2주간에 걸쳐 교사를 위한 강의를 준비했다. 13일에는 월간 현대종교의 발행인인 탁지원 소장이 '바른 신앙 바른 교육'과 '이단'에 관해 강의 한다. 20일에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양성진 교수가 '소통과 공감의 교사되기'라는 주제로 기독교 교육에 관해 강의 한다. 당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도 동시에 진행 할 계획이며, 〈교사 대학〉에 참여하는 교사의 자녀를 위해 강의시간 동안 사회봉사관 3층에서 아이돌봄 데이케어를 시행한다.

교육국 임재철 목사는 "교회학교 교사는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 중요성 만큼 교사는 영성, 지성, 감성 모든 부분에서 잘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샤이닝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하반기에 나누어 성서, 방법론, 기타소양에 관련된 좋은 강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교사' 들이 세워 지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라며 이번 아카데미에 많은 교사와 성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

박희윤 기자

신앙 간증

공동체의 은혜

안녕하세요. 청년 3교구 속장 김나영입니다. 저를 속장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며,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 결단한 후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지만,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은혜는 공동체의 은혜입니다.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진가는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지가 약한 편이라, 생각한 계획을 실천하기까지 오래걸려 실행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주신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받은 은혜를 나누다 보니 감사는 '발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였습니다.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 모든게 기적이고, 나누고자 하는 부요한 마음이 있다는 것, 나에게만 있는 달란트가 있다는 것, 악한 부분에는 권면을, 연약한 부분에는 사랑으로 감싸주며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매 주 만나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까지 감사하며 이로 인한 감격에 젖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감사는 제게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니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고 결국 그 바뀐 삶의 태도는 저의 상황과 환경까지 바꾸어주며 매일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기 보다는 기도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며 실천하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었고, 속회를 통해 받은 사랑과 감사를 누리기만 하기에는 죄송한 마음이 들어 올해부터 속장의 자리도 사명으로 감당하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함께해준 속장님과 속원들, 그리고 청년3교구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김나영 속장(청년부)

광림의 선봉 1선교구

- 목회현장 -

김정우 목사(1선교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1선교구는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은평구, 옥수동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선교구는 처음 광림교회의 시작이고, 뿌리이며, 선봉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돌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3년째가 되어가는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어려움을 겪었었고,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익숙해져가는 상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전염병보다도 상황에 익숙해져 가는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것이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본과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모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남성속회로 모이고자 애쓰고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광림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놓고,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절실히 자각하고 매월 첫주에는 광림수도원으로 올라가 일일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함께 공유하며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 나라와 민족, 교회,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그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심방을 다니고 일반심방을 다니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낙심한 성도들의 회복과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들의 회복입니다. 모든 것은 1선교구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이며, 지구장님들과 속장님들의 속원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림의 선봉이라는 구호가 무색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앞장서 나가는 1선교구가 되겠습니다.

광림서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광림서교회 교회학교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20일(주일)부터 3월6일(주일)까지 <주기도문>이라는 주제로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이제까지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형식적인 고백을 반성하고,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한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활동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2월21일(월)부터 2월26일(토)까지 <바벨론 속에서 다니엘처럼>이라는 주제로 새학기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속에 믿음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겨울성경학교와 새학기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아라 전도사(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2022년도 2월부터 광림북교회에는 2부 예배(9시) 성가대가 새롭게 조직되었습니다. 청소년, 청년, 청장년 등 젊은 세대가 이른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성전으로 달려오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모습이 기특하기만 합니다. 올해 광림교회 표어인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의 모습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의 주체가 되어 예배를 세워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3부(11시) 시온성가대도 새로운 대원들이 모집되어 성가대석을 가득 채우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있습니다.
성가대장 김영문 권사는 "무엇보다 북교회에 날마다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하셨고, 솔리스트겸 2부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는 유경진 자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라며 고백했습니다. 또한 주일 저녁예배와 금요 은혜의 밤의 풍성한 찬양을 위하여 악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신재, 정해자 성도 가정에서 최고급 전자드럼을 봉헌해 주었고, 베이스 기타와 엠프 구입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광림북교회 성가대와 예배 찬양팀이 든든하게 세워져 모든 예배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재 목사(광림북교회)

3선교구

'2022 온라인 이스라엘 성지순례'

비자가 없어도 OK, 출입국 절차도 밟지 않는 성지순례의 길이 열렸다. 광림교회 3선교구(담당 선영진 목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이스라엘 여행을 떠난다.
성도들은 선영진 목사의 인도로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호수 등 성경을 통해 익히 들어온 성지의 실제 사진을 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을 듣고 온라인으로 함께 여행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첫시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집을 뜻하는 '벧'과 빵을 뜻하는 '레헴'이 만나 빵집을 의미)에 있는 예수탄생기념교회에 들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베들레헴에서 150km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성요셉기념교회와 마리아수태고지교회도 둘러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으로 서는 가정이 되기로 결단했다.

온라인 성지순례는 2월 12일~5월 7일까지 13주 동안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다. 선영진 목사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성전으로 향하게 되고 우리 삶이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겹줄로 한 사람을 세우는 3선교구'는 지난 2월 24일(목) 비전랜드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주제로 일일기도회를 열었다. 매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새가족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하는 회복된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

소현수 기자

[광림의 숨은 명인 탐방 2]

전통문화의 맥(脈)을 잇다

가야금

지애리 권사

지애리 권사는 가야금 연주자로서 전통음악인 가야금산조부터 현대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야금 작품을 아우르는 한국 국악계의 대표 연주자이다.

가야금계의 손꼽히는 대가들인 황병기, 이재숙, 지미자, 황병주 선생을 스승으로 모셨다. 국립국악원의 단원으로 활동하였고, 추계예대 겸임교수와 서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에 출강하면서 후학을 양성하였고 지금은 자신의 본령인 전문연주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립국악원, KBS교향악단 등 다수의 오케스트리와 협연하였으며 아시아·유럽·북미·호주·아프리카 등 세계의 도시들에서 많은 연주회를 가졌다. 케네디센터, 예루살렘의 헨리 크라운 홀, 베니스 비엔날레 기념 이탈리아 CINI 재단, 샌프란시스코 아시안 아트뮤지엄 등 수많은 곳에서 초청독주회를 가지며 세계적인 가야금 주자로 주목을 받아 왔다.

하나님을 만나다

광림교회에 자진등록을 하게 된 지애리 권사는 대학교 4학년때 선생님이 주신 성경책을 결혼 후 혼자 읽으며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다. 1995년 아들의 유치원 접수를 위해 광림교회에 처음 방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광림의 강단에 김선도 감독님의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 곧 바로 그 주일에 두 아들 정석, 정홍을 데리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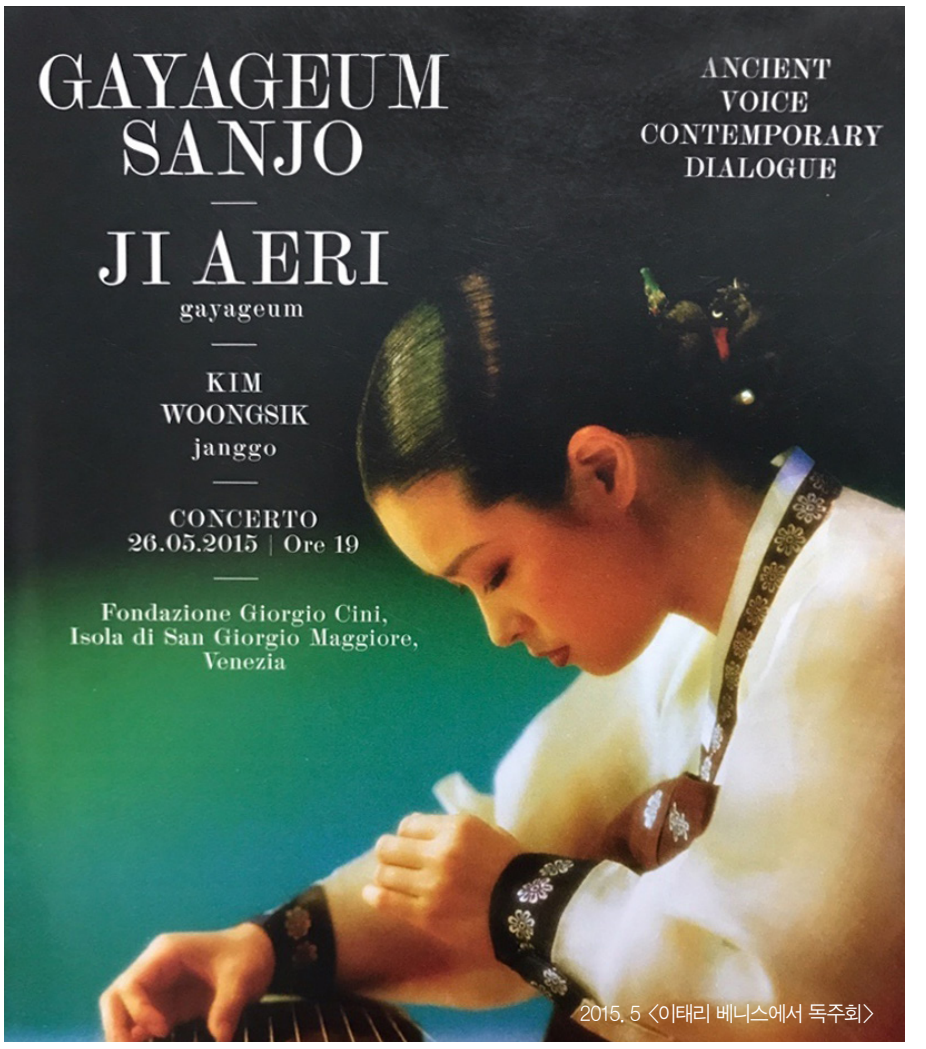
가야금 연주자로 바쁜 일정들이 많았을 텐데 신앙생활과 어떻게 병행하셨는지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살면서 많은 힘이 되어주신 시부모님, 남편과 두 아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연주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일성수는 물론이고, 속회, 교구 다니엘기도회, 일일기도회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해외연주를 갈 때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읽으며 두고 온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연주를 하는 동안에도 '저의 연주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건강할 때 하나님께 봉사하기로

지난 2018년도 초 스승인 황병기 선생이 돌아가신 후 많은 생각을 하면서 묵묵히 있을 때 여성성가대의 대원으로 함께하자는 제의를 받았어요. 이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내가 건강하게 발로 뛰면서 봉사 할 수 있는 날이 10년 정도이겠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성가대에도 들어갔고 속장, 선교회장 역할도 감당하고, 작년부터는 샤이닝 스쿨, SSA에서 초등학생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치고 있어요.

작곡가 이영자 선생님과 함께



2015. 5 〈이태리 베니스에서 독주회〉

올해 여성성가대 대장을 맡으셨는데 각오는

올해 여성성가대 대장의 사명을 주셔서 순종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맡은 이유 중 하나가 성가대원 한 분 한 분을 존경하기 때문이에요. 집이 멀리 있어도 매주 수요일마다 오시는 대원들의 열정에 많은 감동을 받아요. 2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연주활동은 줄었지만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애리 권사는 가장 큰 기도제목이 남편 정훈성도의 집사직분 받는 것이라며,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남편과 두 아들 정석, 정홍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다.

- 선화예중고,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박사)
- 제4회 KBS국악대경연 현악부분 금상(97)
- 국립국악원, KBS국악관현악단, KBS 교향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등과 협연
- 베니스비엔날레기념 이탈리아 Cini재단 초청 지애리가야금 독주회(2015 베네치아) 등 다수 해외 초청 연주
- 한불 120주년 기념공연(베르사이유 궁)
- 미국 하버드대, 영국 대영박물관 등 세계 유수 대학과 박물관 등에서 연주

백명순 기자

츄즈라이프(Choose Life)

츄즈라이프는 신명기 30장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참된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츄즈라이프는 성경 전체의 개념을 잡는데 도움을 줍니다. 상반기에는 〈구약의 맥〉으로 구약 전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수있으며, 하반기에는 〈신약의 강〉으로 신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월 13일부터 10주간 매주 주일 09:00~10:00,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B에서 김우진 목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어번던트라이프(Abundant Life)

어번던트라이프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위한 성경공부로 매 학기 존 웨슬리와 감리교회, 종교개혁, 한국교회사, 묵상, 영성생활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학기는 건강한 속회를 주제로 진행되며, 예비 속장, 속장, 소그룹에 관심 있는 분들, 더 나아가 속회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분들에게 모두 열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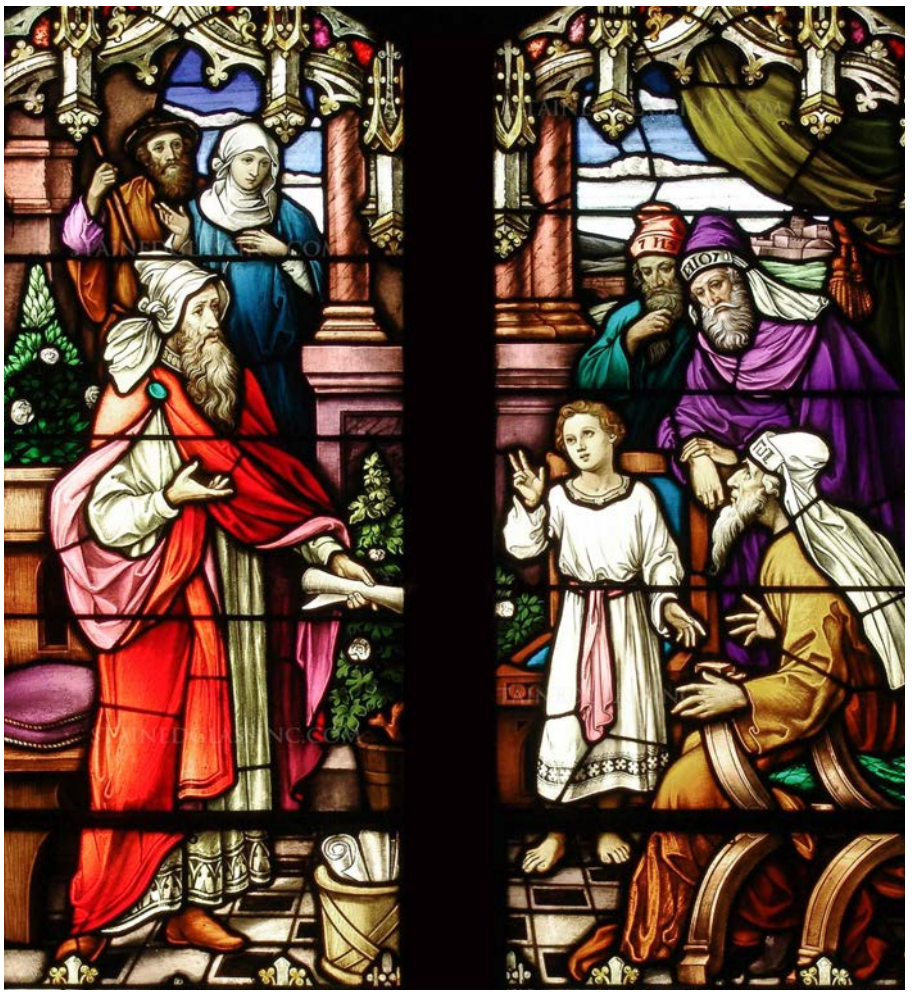
•3월 13일부터 10주간 매주주일 11:00~12:00,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B에서 유용찬 목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5

예수의 소년 시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 누가복음 2장 52절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어 가고 있는 동안 아기 예수는 이집트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헤롯 왕도 목숨이 다해 죽었다. 이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너희가 살던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가라."
예수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훗날 사람들은 예수를 지칭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칭호는 우연이 아니다. 일찍이 여러 예언자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을 예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 **스테인드글라스에 그려진 성전의 소년 예수**
소년 예수의 탁월한 율법 지식과 지혜로운 대답에 감탄하며 경청하는 율법 학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예수는 다른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열두 살 때까지 회당에 가서 율법을 공부하였다. 목수인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돕기도 하였다. 소년 예수는 쑥쑥 자라났다.
유대의 소년들은 열두 살이 되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해야 했다. 열두 살이 된 예수는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보내기로 했다. 유월절의 예루살렘은 인파로 뒤덮인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먼 타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긴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모여들기 때문이다.

7일간의 유월절 축제가 끝나자 사람들은 그들의 거주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소년 예수는 나이 지긋한 율법 학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율법에 관해 토론하고 있었다. 소년 예수의 탁월한 율법 지식에 학자들은 경이로워하는 표정이 역력하였다.

▲ **성전에서 토론하는 소년 예수_** 예루살렘 성전에 홀로 남은 소년 예수가 율법 학자들과 토론을 하는 장면이다. **파울로 베로네세의 작품.**

그들 앞으로 마리아가 나서서 말했다.
"예수야,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니?"
그러자 소년 예수가 대답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오히려 당당한 반응이었다. 소년 예수의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다. 소년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순종하며 지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광림뉴스레터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구약성경〉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편집인 유용찬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심원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옥이 김혜경 박신애 박희윤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신희경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선아 이정순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